

폐허에서 동심을 발견하는 두 가지 방법

- 박화목과 손동인을 중심으로 -

강수환*

〈차 례〉

1. 두 아동문학가의 상반된 궤적
2. 그리움·향토성·기독교적 이상주의의 매개, 박화목의 동심
3. 현실성과 역사성에서 동심을 찾기, 손동인의 경우
4. 나오며

[국문초록]

1924년생 아동문학가인 박화목과 손동인은 혼란한 현실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동심을 발견하고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자 노력했다. 박화목은 시적 상상력에 기초한 동심을 노래하되, 특히 1970년대 이후부터는 산업화로 인해 향토적 정경이 파괴되어버린 시대의 어린이들이 정서와 서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그 대안으로 박화목은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기도 한 기독교적 이상주의를 자기 문학에 반영하여, 사라진 향토적 정취를 그리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파괴와 죽음의 자리 위에서 새로운 동심의 출현(부활)을 포착하고자 했다. 손동인은 산문적 세계와 현실성에 입각하여 당대 약자로서의 어린이의 마음을 그리고자 했으며, 1970년대를 전후해서는 전래동화 연구를 통해 동심을 화두로 민족적 차원의 연결성을 탐색한다. 초기 창작과 연구에서 손동인은 이드로서의 동심을 옹호해왔으나, 후기에는 얼마간 교회성을 강조하는 아동문학관으로 방향이 전환된 듯한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약자로서의 어린이의 현실을 그려내고 이들의 극복 의지를 응원한다는 점에서, 손동인의 근원적인 동심관·아동문학관은 굳건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박화목, 손동인, 동심, 향토성, 기독교적 이상주의, 현실성, 이드

*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강사

1. 두 아동문학가의 상반된 궤적

언젠가 김응교는 1922년생 문학인을 “폐허의 청년들”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22년생 작가들은 몇 가지 큰 사건을 통과해야 했다. 1942년 스무 살 때 태평양전쟁, 1945년 스물세 살 때 해방, 그리고 1950년 스물여덟 살 때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작가로서 최고의 활동기에 전후문학의 특징을 보여준 것이다. 이들의 풍성한 창작 활동으로 인해, 그 무너진 상상력의 공간은 그나마 허기(虛飢)를 다소 면할 수 있었고, 이어서 1960년대 이후 새로운 기운의 시민문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¹⁾ 이 시기를 통과해야 했던 문학가들의 청년기를 명료하게 압축한 대목이기에 길게 인용했다. 이들은 자기 거점이 폐허와 같이 허물어지는 사건을 반복 경험하면서도, 폐허에의 체험을 문학적 토양으로 삼아 우리 시대의 공백을 채워 넣었다.

1924년생 문학인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겠다. 일제로부터의 징집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있다면 반복되는 폐허의 경험을 조금 더 이른 나이에 겪었다는 정도일 것이다. 김응교의 표현처럼 이 “폐허의 청년들” 가운데 일부가 진공 상태와 같은 당장의 공백을 채우고자 “존재의 탐색”을 수행했다면, 또 다른 일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토대를 다지는 일에 헌신했다. 어린이를 위한 문학을 쓰는 아동문학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 아동문학 연구에서 전후 시대에 활동한 아동문학가에 관한 연구의 토대는 유독 빈약하다. 이 글은 아동문학가 박화목과 손동인을 다룬다. 1924년생으로 올해 탄생 100주년이 되는 두 아동문학가는, 동시·동화 창작부터 아동문학 연구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는데, 흥미롭게도 이 두 사람의 궤적은 어딘가 대칭적이다.

박화목은 황해도 황주 장천리 출생으로, 1941년 『아희생활』에 동시 「피라미드」 「겨울밤」이 추천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한다. 평양신학교 예과를 수학하고, 이후 만주에서 하얼빈 영어학원과 봉천신학교를 졸업한 뒤 해방 직후

1) 김응교, 『폐허의 청년들, 존재의 탐색』, 김응교·김진기 외, 『폐허의 청년들, 존재의 탐색』, 민음사, 2022, 28쪽.

1946년 월남하여 조선청년문학가협회 아동문학위원, 국제 국제 펜클럽 (PEN) 한국본부 이사, 한국아동문학회 회장, 한국문인협회 아동문학분과 회장을 지냈으며, 언론·교육 활동으로는 서울중앙방송의 문예 담당 프로 듀서, 한국일보 문화부장, CBS 교양부장과 편성국장, 중앙신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05년 7월 9일 서울에서 별세했다.²⁾

손동인은 경남 합천 출생으로, 1950년 『문예』 시부 3회 추천되어(「누나의 무덤가에서」, 「산골의 봄」, 「별리」로 서정주, 김영랑, 모운숙에 의해 추천) 문단에 데뷔했으며, 한국아동문학가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진주 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합천, 함양, 대구 등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한국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하여 부산일보 기자로 활동했고, 이후 1954년 경남고교에 부임하여 교사 생활을 재개했으며 1962년에 보성고교 부임, 1968년에는 인천교육대학 국어과 교수로 부임해 1989년 정년 퇴임하였다. 1992년 5월 6일 손동인 역시 서울에서 별세했다.³⁾

크게는 한 사람은 북에서 서울로 다른 한 사람은 남에서 서울로 이동했다는 점, 박화목이 처음부터 아동문학(동시)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이후 성인문학(시)을 병행한 반면 손동인은 성인문학(시)으로 출발하였다가 아동문학가로도 활동했다는 점, 그리고 각각 한국아동문학회와 한국아동문학가협회에서 중직을 맡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아동문학회와 한국아동문학가협회는 “한국문인협회와 자유실천문인협회의회의 대립에 상응하는 ‘순수파’대 ‘사회파’의 논리를 아동문학에 새겨 넣으면서” 아동문학의 본질과 향방을 둘러싼 비평적 논의의 각축을 촉발한 대표적인 단체다.⁴⁾ 이처럼 동갑내기 아동문학가였던 박화목과 손동인은 외관상 삶의

2) 신정숙, 「팔각정에서 차 한 잔: 박화목과 '과수원길」, 『동일한국』 제41권, 평화문제연구소, 1987; 진선희, 「박화목 동시 연구(1): 발표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9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0, 6쪽; 지기원, 「은중 박화목의 시에 나타난 기독교 세계관」,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참조.

3) 김계곤, 「인간 손동인(上)」, 『廣場』 1989년 3월호; 김계곤, 「인간 손동인(下)」, 『廣場』 1989년 4월호; 정화숙, 「손동인론: 그의 수필 작품에 나타난 의식와 장르 확대를 중심으로」,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4) 원종찬, 「이원수와 70년대 아동문학의 전환」, 『한국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157쪽 참조.

궤적에서부터 문학적 지향까지 여러모로 상반된 모습처럼 보인다.

덧붙여 두 사람 모두 운문과 산문 형식을 가리지 않는 창작 활동을 보였음에도, 한 사람은 특히 동시 작가로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동화 작가로 사람들의 기억에 각인되어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겠다. 이때 박화목은 전자 그리고 손동인은 후자에 해당할 것이다. 이는 물론 두 사람의 각 대표작이라든지 발표 경향 등으로부터 기인한 결과겠지만, 여기에는 조금 더 근원적인 차이가 내재하는 듯하다. 가령 김동리는 『박화목 아동문학독본』(을유문화사, 1962)에서 박화목의 동화를 해설하며 그의 동화가 현실적이기보다는 ‘기독교적 이상주의’ ‘관념 동화’의 성격을 보인다고 평한다. 언뜻 해설치고는 박한 평가처럼 보이나, 김동리의 의도는 박화목의 작품 세계가 산문보다는 시에 더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 있었다.⁵⁾ 박화목의 동화가 현실성보다는 이상성·관념성의 측면이 도드라지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가 시적 세계에 발을 딛고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⁶⁾

한편 손동인이 지향하는 세계란 산문의 형식에 가까웠다. 전술했듯 그는 1950년 『문예』 시 부문 3회 추천으로 등단했으나 당선 소감은 다음 해인 1951년 신년 호에야 실을 수 있었는데, 이는 한국전쟁으로 한동안 『문예』지가 발간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손동인은 대구중학교에 취입한 지 20일도 안 되어 전쟁으로 급히 부산으로 피난을 떠난다. 전쟁의 참혹함을 몸소 피부로 겪은 이후 그는 “기성 시인으로 데뷔는 했으나, 앞으로의 작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방향 전환을 모색한다.⁷⁾ 아마도 지금 이곳에 필요한 것은 서정과 관념의 언어보다는 현실 세계에 더 가까운 형태의 언어가 아닌 가 하는 고민이 들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결국 손동인은 시가 아닌 산문을 통해 세계를 그려나가기로 결심했고 이에 “소설과 동화로 전향”을 택한다.⁸⁾

5) 이충일, 『해방 후 아동문학의 지형과 담론』, 청동거울, 2016, 145쪽.

6) 박화목의 동시에 대해서도 김동리는, “아이들의 생활”보다는 “상상(想像)의 세계, 순수한 동경(憧憬)의 세계”를 그리는 그의 작품이 “과거의 동요를 시의 경지에 끌어올려 놓으려” 한다고 고평한다. 이렇듯 박화목의 작품이 내포하는 이상성·관념성은 산문과 운문 모두로부터 명징하게 발견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김동리 편, 『박화목 아동문학독본: 한국아동문학독본 8』, 을유문화사, 1962, 4쪽.

7) 손동인, 『이 외나무다리 난 우얄꼬』, 명문당, 1986, 271쪽.

그는 1952년 ‘한국아동문고 현상작품모집’에 동화 「잃어버린 누나」가 당선되면서 아동문학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생애와 활동부터 언어 세계와 같은 근원적인 영역까지, 두 아동문학가의 면면은 확실히 상반되어 보인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각각 시와 산문의 언어를 통해, 서로 다른 갈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르고자 했던 목표점의 거리는 그만큼 멀었을까. 다음 장부터는 박화목과 손동인의 작품·연구·활동 등을 두루 살피며 이들이 아동문학계에 남긴 유산을 차례로 점검해보고자 한다.

2. 그리움·향토성·기독교적 이상주의의 매개, 박화목의 동심

1) ‘먼 옛날’을 그리워하는 동심의 문제

우선 널리 통용되는 박화목의 작품 세계에 대한 평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자. 먼저 이재철은 박화목의 동시와 동화의 작품 세계를 각각 ‘상상과 동경과 애수의 세계’와 ‘허무적·기독교적 이상주의’로 평한 바 있는데⁸⁾ 이는 사실상 김동리가 앞서 살핀 『독본』 해설에서 이미 내린 평가와 상당 부분을 함께한다. 박화목의 작품 세계가 시와 가깝게 감응하기 때문에 위 경향이 나타난 것이라는 김동리의 진단이 만약 옳다면,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선 박화목의 시 세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하겠다.

진선희는 박화목의 동시 220편을 살핀 끝에 그의 동시 세계의 주요 특징을 다섯 가지로 자세히 구분한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예술적 승화’, ‘민족

8) “그러던 중 나는 소설과 동화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과정이 다분히 산문(散文)의 세계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나는 마침내 소설과 동화로 전향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나를 시인으로 데뷔시켰던 서정주·김영랑·모윤숙씨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같은 곳.

9)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415~7쪽; 『세계아동문학사전』, 계몽사, 1989, 131쪽 참조.

적 삶과 정서의 감각적 구체화’, ‘동양적 관조와 서경적 서정시의 세계’, ‘동시의 예술성 탐색과 구현의 과정’,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동심의 세계’가 바로 그것이다.¹⁰⁾ 앞의 김동리와 이재철의 평가에 비해 더욱 상세하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그리움(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예술적 승화)과 향토성의 정서(민족적 삶과 정서의 감각적 구체화)를 박화목 동시의 특징으로 가장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는 마치 박화목의 동시 세계가 그만큼 자기 전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방증하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기실 “어린이의 자연 친화적인 특성을 매개” 삼아 “초역사적 향토성”을 내세운 아동문학을 창작했던 것은 이른바 ‘순수주의’ 문학관에 선 아동문학가 전반이 공유하는 특징이었으며¹¹⁾, 신앙심(기독교)을 바탕으로 한 문학 활동 또한 서북 출신 문인으로부터 널리 발견되는 사항인 까닭에 이를 박화목의 작품 세계가 지닌 고유한 특징이라 말하기에는 다소간 범박한 정의겠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리움의 정서’ ‘토속성·향토성’ ‘기독교적 이상주의’라는 각각의 요소가 발견된다는 사실을 넘어, 이들이 박화목의 작품 안에서 어떤 논리 하에 서로 결합하고 관계하는지를 밝히는 일일 것이다.

박화목의 동시에서 나타나는 그리움과 토속성의 정서는 당장 그의 대표작으로 널리 암송되는 「과수원길」의 구절들(“아카시아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길”)만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동시 동요의 화자는 현재의 시점에서 아카시아꽃이 활짝 핀 과수원길을 바라보는 어린이보다는, 그 “먼 옛날의 과수원길”을 추억하는 어른임이 자명하다. 실제로 이때의 과수원은 제물포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던 큰아버지 댁에서 “아카시아 꽃잎을 입에 물고 다녔다”는 시인의 유년기 체험이 짙게 반영되었을 상징적 장소이기도 하다.¹²⁾ 이러한 특징은 박화목의 여러 동시에서 두루 나타난다.

10) 진선희, 「박화목 동시 연구(2): 본향에 대한 그리움의 감각적 구체화」, 『韓國初等教育』 제21권 제3호,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11, 15~28쪽 참조.

11) 원종찬, 앞의 책, 153쪽. 이러한 경향은 특히 당시 박화목이 속한 한국어동문학학회에서 개최한 세미나 ‘전원문학과 아동문학의 과제’(1972.8.21.~22.)에서 두루 확인할 수 있다.

12) 신정숙, 앞의 글, 77쪽. 한편 과수원은 박화목에게 각별한 장소인데 이 측면은 시집 『천사와의 씨

두 눈을 감으면
옛 꿈이 삼삼,

다정한 벗의 음성
꺾가에 속삭이네.

오월의 푸르름은
못 잊을 그리움

어느 먼 숲속에서
뻗꼭이가 운다.

- 「아카시아길」 일부

이 동시는 『꽃이파리가 된 나비』(아중문화사, 1972)에 수록된 작품으로, 여기서도 화자는 “옛 꿈” “다정한 벗의 음성” “오월의 푸르름”을 못 잊고 그리워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또한 이번에도 아카시아는 우리 일상 주변에 피어 있는 현재적 자연물이 아닌 과거 그리움의 정서를 함의하는 상징적 이미지로 반복 재현되고 있다. 따라서 그의 동시에서 발견되는 그리움과 토속성의 정서는, 해당 동시 동요를 현장에서 읽고 노래하는 도시 밖 어린이의 것이 아닌, 유년기 기억 속의 토속적 이미지를 경유한 그리움에 공감할 수 있는 어른 화자의 것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렇다면 박화목의 동시 동요는 당대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유년기의 향토적 풍경과 정서를 그리워할 수 있는 어른 독자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요약될 수 있을까. 지나치게 손쉬운 진단처럼 들린다. 무엇보다 그는 “아동문학은 제1차적으로 아동을 독자대상(讀者對象)으로 한 문학이다.”

름』(한국문학사, 1975)에 담긴 ‘과수원 연작시’(「봄 과수원」「여름 과수원」「가을 과수원」「겨울 과수원」)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분명히 표명해온 아동문학가이기 때문이다.¹³⁾ 다시, 그렇다면 우리는 박화목의 그리움, 토속성의 정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는 어떻게 기성세대의 그리움과 기억이 어린이를 위한 문학적 질료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걸까.

진선희 역시 박화목의 동시가 노정하는 위의 문제를 해명할 필요를 느낀 듯하다. 그는 박화목의 동시에서 빈번히 출현하는 과거 회상적 이미지가 어린이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문학에서 과연 적합한 것인지를 자문한 끝에, 페리 노들먼(Perry Nodelman)의 ‘내포 독자로서의 아동’ 개념을 빌려 이를 설명한다.¹⁴⁾ 말인즉 “작가가 상정한 독자로서 ‘아동’이 아동문학에서의 아동”이라는 것이다.¹⁵⁾ 실제로 박화목은 비록 아동문학의 제1차 독자가 어린이인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어린이가 즐겨 읽는 이야기 모두를 곧 아동문학으로 정의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아동문학의 핵심은 ‘동심’에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아동문학을 재정의한다. “아동문학은 문학 작가가 아동이나 또는 동심 세계를 동경(憧憬)·갈망(渴望)하는 일선 독자를 대상으로 창조한 동심의 문학이다.”¹⁶⁾ 그렇다면 박화목이 말하는 동심이란 무엇일까.

오늘 어린이의 부모(어른)들은 자라는 어린이들의 꿈에의 동경(憧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꿈을 간직하려는 마음 바탕을 흐트러 놓습니다.

“동화책을 좀 그만 읽게 하구 학습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해야겠소.”

거의 부모들의 의식구조에는, 이런 실리적(實利的)인 생각으로 꼭 차 있다고 말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꿈은 어린이 마음의 본질적 요건입니다.

13) 박화목, 『아동문학개론』, 민문고, 1989, 12쪽.

14) 페리 노들먼,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 김서정 옮김, 시공주니어, 2001, 50~4쪽 참조.

15) 진선희, 앞의 글, 17쪽.

16) 박화목, 앞의 책, 20쪽. 덧붙여서, 당대 아동문학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박화목만의 것이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 손동인 또한 에리히 케스트너(Erich Kästner)의 “나는 8세의 아동으로부터 80세의 아동을 위해 아동문학을 쓰고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아동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독자의 나이가 아닌 동심에 있다고 쓴 바 있다. 손동인, 『한국 전래 동화 연구』, 정음문화사, 1984, 22쪽.

꿈은 어린이 세계의 기간적(基幹的)인 지주(支柱)입니다.

어린이가 꿈을 잃었을 때, 그 어린이는 비인간으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¹⁷⁾

동심을 명확히 개념화한 것은 아니나 박화목은 “어린이 마음”[童心]이란 곧 “꿈(理想)의 세계”라고 말했다.¹⁸⁾ “실리적인 생각”에 의해 억압된 “꿈에 의 동경”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라면 비록 어른일지라도 ‘어린이 마음’(동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먼 옛날’을 그리워할 만큼 훌쩍 나이 든 화자의 고백일지라도, 두 눈을 감고서는 실리적·현실적 고민이 아닌 오래도록 그리워하고 동경해 온 “옛 꿈”을 노래하는 한 박화목에게 이것은 동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박화목의 동심이 종종 도전받는 이유는 단순히 화자의 연령대가 어른으로 추정되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물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화자로 나타나는 동시 또한 얼마나 많은가. 문제는 그의 동시에 짙게 배어 있는 옛것을 향한 그리움의 정서가, 과연 아동문학의 제1차 독자대상이라 할 수 있는 아동을 시적 중추에 놓는가 아니면 이들을 오직 계몽의 대상이나 청자로서 주변화하는가이다.

2) 죽음에서 발견한 새로운 삶의 가능성

하나 분명한 것은 박화목은 아동문학의 교육적 효용을 부단히 강조했다. 이는 사실이다. 아동문학을 계몽의 도구로 삼는 풍조를 경계하며 “아동문학이 마치 교육의 한 수단인 것처럼 오인하고 있는 듯한 작가들”을 향한 거센 비판이 이영호를 비롯해 특히 한국아동문학가협회 쪽에서 제기되어온 바 있으나¹⁹⁾ 박화목은 교육과 아동문학을 연관 짓는 관점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

17) 박화목, 『教師와 어머니 위한 幼年童話』, 白鹿出版社, 1976, 21쪽.

18) 같은 곳.

19) 이영호, 「兒童文學의 傳統性과 庶民性」, 韓國兒童文學家協會 編, 『兒童文學의 傳統性과 庶民性』, 세종문화사, 1974, 21쪽. 또한 이 발표문에서 이영호는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감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신문학 초창기에서와 같이 새것 콤플렉스에 걸려 있는 듯한 징후를 보여주는” 아동문

를 살필 수 있는 사례로, 박화목은 『新兒童文學論』(보이스사, 1982)을 개정하여 펴낸 『아동문학개론』에서 “동시를 쓰고자 하는 교사에게”라는 장을 새로 보강하여 덧붙였다. 박화목이 생각하는 동시인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기에 주목을 요할 만한데, 흥미로운 것은 해당 장의 제목을 ‘동시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가 아닌 ‘교사’로 쓰며 그 수신 범위를 특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만큼 박화목이 얼마간 교육의 관점에서 동시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장의 5절에 해당하는 「동시의 교육적 효용에 염두를 둘 것」에 잘 나타나 있다. 이곳에서 그는 “오늘날 동시를 시와 마찬가지로 시인의 정감(情感) 또는 문학 사상을 전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주장에 반대하며, 우리 동시의 기원이 “계몽적인 동요에서부터였다는 점”을 착안하여 “언어 발달, 지능 계발,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성 회복이라는 교육 목표를 두고 동시를 써야 한다는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함을 당부한다.²⁰⁾ 여기까지만 살핀다면, 박화목의 동시에서 어린이 독자는 시적 주체이기보다는 교육·훈육의 대상으로 밀려나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사안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힘 겨운 듯 두 날개를
하느작이며

나비는
팔랑팔랑 날아 오른다.
꽃밭이 없는 아파트 빌딩
개름한 하늘 향해

학들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는 공교롭게도 박화목의 동화 「한국에 온 한스 할아버지」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20) 박화목, 『아동문학개론』, 341~2쪽.

창문마다 행여나
꽃이 피어 있을까
찾아다니며

(…)

한 송이 꽃을 찾아
날아 오르다 그만 지쳐
노란 꽃잎이 되어
팽그르르 떨어진다.

- 「아파트와 나비」 일부

「아파트와 나비」는 「과수원길」이 실린 동시집 『아파트와 나비』(화술, 1989)의 표제작이기도 하다. 작품은 삭막한 아파트 빌딩 사이를 날며 꽃을 찾아 헤매던 나비가 끝내 지쳐 추락하는 이미지를 그리는데, 생명/자연적 공간인 ‘꽃밭’과 죽음/인공적 공간 배경인 ‘아파트’를 대비함으로써 현대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비추고 있다. 사라진 자연의 토속적 풍경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이 동시는 앞서 언급한 박화목 동시의 경향성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산업화에 따른 정서의 빈곤과 비인간화(非人間化)는 1970년대 전후 박화목의 동시와 동화 모두에서 자주 발견되는 테마이다. 이 시기부터는 옛 고향의 정취를 잃고 그리움을 느끼는 것은 더는 실 향민인 박화목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닌 남한 어린이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로 비쳤을 것이다.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많은 어린이가 도시로 이주해야 했거나, 도시에 거주하던 어린이 또한 과거 향토적 환경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진선희는 이 작품으로부터 “도시의 아파트에서 꽃밭을 찾아 헤매는 나비에 대한 안타까움은 고향을 상실한 시인 자신의 아픔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읽어낸다. 요컨대 “박화목의 고향 상실”의 경험은 곧 “민족적 분향의 상실과 연계”되는 것으로, 자세히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자연이 훼손되고 옛 것이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동심, 물질만능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 여기의 결핍을 드러”냄으로써²¹⁾ 상실한 분향을 향한 그리움을 동시에서 반복 표출한다는 것이다. 「아파트와 나비」에 대한 무리 없는 내외재적 접근으로 보인다. 다만, 이 평가에는 한 가지 사항이 더 보충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바로, 박화목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열쇳말인, 기독교적 이상주의이다.

박화목은 일전에도 「꽃이파리가 된 나비」라는 동시에서 장마로 죽은 나비를 꽃잎으로 형상화한 적이 있다(…비가 그쳐도 다시는/날지 않는 나비.// 하얀 나비/꽃이파리가 되어 버린/꽃 나비.). 그는 스스로 본인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죽음을 승화시켜 영원한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해 보려 한 그 뜻이 이 동시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며 “이 사상은 그리스도교 정신에서 도출(導出)되어 온 것”이라고 밝혔다.²²⁾ 이 동시는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배태된 부활과 영생(“영원한 아름다운 것”)을 주제 의식으로 삼는 점에서 다분히 기독교적이며 관념적이다. 이때의 작법은 「아파트와 나비」에서 “팽그르르 떨어”진 나비가 죽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자신이 줄곧 찾아 헤매던 대상이자 이상향인 “노란 꽃잎이” 된 이미지의 제시로 이어진다.

「꽃이파리가 된 나비」보다 이후에 쓰인 「아파트와 나비」속 나비의 이미지에서는 비교적 실체성이 감지되는데, 이는 단순히 ‘죽음의 승화’라는 관념적 주제만을 형상화한 것이 아닌, 당대 어린이들이 겪는 정서적 결핍을 분명히 환기하는 까닭에서겠다. 나비는 진선희의 말처럼 “고향을 상실한 시인 자신”일지도 모르나, 일차적으로는 도시 문명으로 인해 정서적 빈곤에 허덕이는 어린이를 지시하는 시어이기 때문이다.²³⁾ 그러므로 비록 현실적으로 관

21) 진선희, 앞의 글, 22쪽.

22) 박화목, 앞의 책, 315쪽.

23) 박화목은 산업화와 도시 생활이 어린이의 정서 빈곤 문제를 야기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적 정서 체험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그런데다, 도시의 일상생활은 정서적인 접촉에 굶주려 있는 형편이야. 정서가 메마른, 각박한 일상의 상황 속에서 쫓기다 보니까 (…)

찰되는 형상은 나비(=어린이)의 죽음(=정서의 빈곤) 쪽일 테지만, 시인은 어린이가 결부된 이 상황을 그저 패배로 남겨 둘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꽃을 찾는 데는 실패했으나 자기 자신이 “노란 꽃잎”으로 거듭나는 이미지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부활 사상”에 관해서는 박화목 스스로가 자신의 동화「키다리 사나이와 아이들」을 직접 해설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논한 바 있다. 동화는 ‘죽음’을 상징하는 키다리 사나이가 결국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해 마을을 떠난다는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이 동화의 주제를 “봄은 오고야 만다는 믿음”이라 소개하면서, “봄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믿음에 의해 ‘죽음의 슬픔’은 쫓기고 맙니다”라고 쓴다.²⁴⁾ 봄(부활)은 언제나 겨울(죽음) 이후에 오는 것이다. 이때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전의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며 “영원한 아름다운 것”과 같은 뜻밖의 아름다운 가치가 배태되는 순간을 지시한다.

이 점을 미루어 동시를 다시 읽는다면, 마지막 추락하는 나비의 이미지는 ‘자연과 옛것의 훼손에 대한 안타까움’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독해된다. 봄은 사라지지 않고 기다리면 언젠가 오고야 말 테지만, 꽃은 얼마든 사라질 수 있으며 다시 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도시화 이전의 풍경으로 회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가치가 발생하듯, 지쳐 떨어지는 나비로부터 시인은 새로운 “노란 꽃잎”의 발현을 포착한다. 나비가 내려앉아 쉴 만한 꽃을 찾지 못하듯, 시인의 눈에 이 사회에는 지금의 어린이들이 기댈 만한 정서적 쉼터

어린이에게 있어서 정서적 빈곤은 가치관을 흐리게 하고 범행의 요인을 주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산업화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린이를 위한 많은 서적이 출간되어 어린이 정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정숙, 앞의 글, 76~7쪽; “그것은 시골이 지닌 자연과 환경 그 자체가 정서 체현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 일 것이다. 요즘은 이 이론이 꼭 들어 맞다고 말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내가 어렸을 그 시절에는 시골 곧 농촌마을은 정녕 정서체현의 보고(寶庫)였던 것이다. (...) 오늘 일상의 문화가 살기 좋아 졌다고는 하나 마음이 자꾸만 삭막해지는 것이, 어찌면 농촌의 한 여름밤의 꿈을 잊어버렸기 때문 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박화목, 『한 여름밤의 꿈』, 『지방행정』 45(514),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6, 12쪽.

24) 박화목, 『教師와 어머니 위한 幼年童話』, 149쪽.

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동심(꽃)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시의 마지막 이미지는, 과거 향토적 서정이 죽어 메마른 자리로부터 회미하게나마 새로운 형태의 꽃(동심)이 피어 흩날리는 모습으로 전환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때 ‘부활’의 잠재성은 연약한 나비, 즉 어린이한테서 나온다.

물론 박화목의 많은 동시에서 어린이의 자리는 정서적 교육의 대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과거 지향적 그리움을 노래하는 것에서 그치는 작품도 더러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는 어떤 새로움이 출현하는 순간을 그의 동시가 예리하게 포착할 때면, 그 중심에는 늘 순수하고 약한 존재(어린이)가 놓여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⁵⁾ 이것이 박화목의 열쇳말인 그리움, 토속성, 기독교적 이상주의가 ‘동심’을 매개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3. 현실성과 역사성에서 동심을 찾기, 손동인의 경우

1) 어린이와 현실성, 역사성, 서민성

앞서 살핀 박화목에게 기독교 신앙은 작품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사유에서도 밀접하게 관계하는 측면을 보였다. 그렇다면 손동인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언젠가 손동인은 오랜 시간 교직 생활을 같이해온 동료 김계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

25) 이러한 경향은 동시가 아닌 그의 시에서도 더러 발견된다. “찬 겨울 하늘 높이/하늘 드높이/저 꼬리연은 너홀너홀/마음껏 날아가겠지.//언제인가는 실울이 끊겨/몸이 갈기갈기 찢길테지만/하늘 향한 뜻은 굽힐 수 없어……. (….) 꼬리연이 사라진, 아득한/하늘가에서 문득 그리운/님의 얼굴을 본다.”(『꼬리연을 날린다』 일부, 『기독교사상』 1981년 1월호, 198~9쪽) 이 시에서 꼬리연은 “하늘 향한 뜻”이라는 이상을 품고 자유롭게 마음껏 날고 싶지만, 거기엔 “찬 겨울”의 혹독한 현실 앞에서 언젠가 “몸이 갈기갈기 찢길” 만큼 약한 존재이며 끝내는 사라지고야 만다. 하지만 앞서 나비의 죽음으로부터 노란 꽃잎이 발생했듯, 여기서 꼬리연은 사라졌으나 그는 자유롭게 날아 결국 “그리운/님의 얼굴”을 비추는 하늘이 된다. 이처럼 약한 존재가 추락하거나 스러진 자리에서 새로운 이상적 가치의 배태를 포착하는 것은 박화목의 기독교적 이상주의 문학관의 고유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 “나는 종교가 없다. 그러나 어머니를 믿는다.”²⁶⁾ ‘어머니’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점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에게서 진리란 현실을 초월해 있거나, 역사성과 계보를 벗어난다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의 뿌리이자 구체적인 현실 경험을 공유하는 존재인 어머니를 향한 믿음, 이것은 손동인의 문학 세계에서 현실성과 생활 감각이 중요한 낱말로 자리 잡게 되는 데에 영향을 끼친다.

손동인의 작품 다수가 초기부터 현실 어린이의 일상을 형상화한 생활동화의 형태로 쓰인 것도 다소간 위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이러한 그의 아동문학관은, 1970년대 전후 한국 문단의 화두로 자리매김한 ‘민족문학’과 관계하면서 점차 그 시야를 과거와 전통으로까지 넓히기에 이른다.²⁷⁾ 일례로 「전래동화와 서민성」이라는 글에서 손동인은 주한중화민국대사였던 왕동원(王東原)의 “문화야말로 민족의 영혼입니다. (...) 고유문화를 보존하는 자만이 세계에 장구히 버티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포문을 연다.²⁸⁾ 박화목의 경우 과거(향토성)는 현재의 결핍(아동의 정서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로 호출되는 것으로 양자 사이의 직접적 연결은 희미하다. 하지만 손동인에게서 과거(전통)는 비교적 큰 규모의 현재적 정체성(“민족의 영혼”)을 확인하고 이를 “장구히” 지속하기 위한 전제에 가깝다.

혹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까. 폐허의 시대, 박화목이 파괴되고 허물어진 자리(죽음)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동심을 발견하고자 했다면, 손동인의 경우는 희미하더라도 여전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동심의 연속적 근원을 발견하려던 것이라고 말이다. 관념과 상징의 세계보다는 현실과 산문의 세계로 기울었다고 고백한 손동인은, 오랜 이야기의 힘과 생명력을 탐색한

26) 김계곤, 「인간 손동인(下)」, 270쪽.

27) 자세한, 손동인의 전래동화 연구는 인천교육대학 교수로 부임한 1968년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를 전후로 그는 “전래동화 수집을 위하여 전국을 10여 차례 답사하고, 경인지방의 전래동화를 15회에 걸쳐 채집하여 30여 편의 논문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채집한 전래동화로 8권의 전래동화집을 발간”한다. 정화숙, 앞의 글, 57쪽 참조.

28) 손동인, 「傳來童話와 庶民性」, 『兒童文學의 傳統性과 庶民性』, 30쪽.

끝에 전래동화까지 거슬러 올라간 셈이다. 그렇다면 손동인이 찾은 동심의 근원에 관해 전래동화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앞서 언급한 「전래동화와 서민성」에서 그는 전래동화의 발생학적 성격, 구성상, 내용상, 등장인물 등의 측면을 두루 검토하며 공통된 요소가 발견된다는 점을 규명한다. 이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바로 ‘서민성’이다.

이를테면 전래동화는 무엇보다 기록이 아닌 귀로 전승되므로 “문자를 모르는 무식대중(無識大衆)” 사이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변형될 때조차 “항상 대중과 서민중심으로 변모”되는 특징이 있다.²⁹⁾ 또한 내용, 형식, 등장인물의 구도에서 약자를 대변하고 강자를 견제하는 원칙이 발견된다는 점에서도 서민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손동인의 주장이다. 이는 곧 서민성=대중성=약자성=어린이의 속성이라는 도식으로 이어진다. 한데 이 같은 속성은 손동인이 전래동화를 탐구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의 창작 동화에서 주요하게 발견되어왔다. 가령 손동인의 초기 동화집 『병아리 삼형제』(한글문예사, 1957)만 보아도 이는 잘 나타난다. 주인공 대부분은 서민층 어린이이며, 주인공이 동물이라면 표제작 「병아리 삼형제」의 ‘병아리’처럼 작고 약한 동물이 내세워진다.

그러므로 순서상으로는 본다면 손동인의 행보는 전래동화를 향한 관심으로부터 동심의 서민성·약자성을 발견한 것이기보다는, 역으로 서민성·약자성에 기초한 자신의 동심관을 전래동화라는 양식을 통해 입증하고 이를 민족적인 차원으로 확장하고자 한 것에 더 가까워 보인다. 물론 이론화 과정으로는 그러한 순서상의 도식이 적절할 테다. 하지만 손동인이 자신의 전래동화 연구서 가장 서두에 괴테의 “내가 인생의 불변법칙을 배우게 된 것은 (…)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던 옛날 이야기 속에서였다”라는 문장을 인용하고 있듯³⁰⁾, 그의 동심관의 구축도 반드시 선형적인 순서로 이해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유년기에 들었던 이야기가 성인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에서 무의식

29) 위의 글, 32쪽.

30) 손동인, 『한국 전래 동화 연구』, p. i.

과 같은 정신분석학적 개념이 상기되는데, 실제로 손동인은 프로이트를 비롯한 정신분석학자들의 이론을 여러 차례 인용하는 등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 바 있다.³¹⁾ 동심에 관해서도 그는 프로이트를 인용하며 이렇게 주장한다. “아동에 있어서는 ‘이드’가 바로 ‘동심’과 직결된다.”³²⁾ 손동인이 아니더라도, 이드는 초자아의 금지에 따라 교화·규범화된 정신의 영역과는 정반대의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종종 어린이의 마음으로 유비되곤 했다. 하지만 손동인은 이러한 이드와 함께 ‘서민성’이라는 요인을 연결 짓는다. 이를테면 이런 대목이다.

여기에서 정신분석학자 Horney가 주장한 ‘기저불안(基底不安)’이 잉태된다. 그런데 이 ‘기저불안’을 해탈하고 달래는 길은 물론 욕구충족에 있다. 그러나 약한 서민들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욕구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작품 속에다 이를 합리적으로 짜 넣고, 청자는 또 그것을 들음으로써 보상적 만족을 얻게 한 것이라 짐작된다.³³⁾

손동인은 카렌 호나이, 에리히 프롬, 해리 스타크 설리번 등등 정신분석학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적잖은 전래동화가 때때로 누군가를 속이고 해하는 등의 부도덕한 이야기를 담는 이유는, “욕구충족”이 불가능한 현실 사회로부터 잉태된 무의식적 불안 때문이라 주장한다. 전래동화 속 거짓말, 사기, 꾀 등은 이러한 현실을 “초극”하려는 무의식적 충동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옛 서민사회에 허언이나 기망사실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

31) 손동인은 1969년경부터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전래동화를 분석해왔음이 확인된다(손동인, 『韓國傳來童話의 作中登場物 性格考: 特히 精神分析學的 見地에서』, 『論文集』 제4호, 인천교육대학교, 1969 참조). 하지만 손동인의 정신분석학 이론의 참조는 일차 텍스트를 직접적으로 참조·인용한 것보다는, 정신분석학적 이론·관점을 활용한 일본 아동문학 연구 성과를 경유한 이차적 참조인 경우가 다수였다. 그러므로 손동인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적절성은 조금 더 면밀히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손동인이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참조함으로써 주장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었는데에 집중할 것이며, 그 적절성에 대한 분석·해석은 별도의 논의를 마련하고자 한다. 중요한 지점을 짚어 준 심사자에게 감사사를 표한다.

32) 손동인, 『한국 전래 동화 연구』, 26쪽.

33) 손동인, 『傳來童話와 庶民性』, 33쪽.

든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손동인은 평한다.³⁴⁾

손동인은 더 나아가 우리가 아동의 이드를 자세히 살핀다면 “아동의 동심 및 ‘정신 구조’까지도 용이하게 파악”하리라고 본다.³⁵⁾ 전래동화를 향한 손동인의 관심은 이러한 관점과도 결부된다. 그는 “전시대(前時代)의 적나라한 아동상과 아동생활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역사적인 문화재는 전래동화”라고 규정한다.³⁶⁾ “식자층이나 귀족계급의 생리에 더 친근”한³⁷⁾ 여타의 고전문학과 달리 전래동화는 이드에 가까운 아동들의 “적나라한” 면면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손동인에게 전래동화는 민족적 차원에서의 통시적 동심 구조를 발견하기에 적합한 양식이었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드는 세련된 식자층의 형태에 맞는 도덕·규범으로 교화된 영역이 아니고, 또한 서민들이 — 이야기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 현실을 초극하기 위해 발현하는 요인 이므로 서민성과 관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민성=대중성=약자성=어린이의 속성이라는 그의 도식의 끝에는 ‘이드’라는 요소가 덧붙는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손동인의 작품 세계에 대한 평에서 자주 발견되는 핵심어가 있다면 바로 ‘교화성’이다. 대표적으로 이재철은 손동인의 동화가 어린이의 생활을 그리되 이로부터 교화성의 측면이 강조된다고 평한다.³⁸⁾ 실제로 오정희의 지적처럼 손동인 작품에 관한 다수의 논의는 “눈물에 의한 교화성으로 성장하는 아이”로 요약되곤 했다.³⁹⁾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이드를 강조한 손동인임에도 정작 창작에서는 초자아적 금지의 수용과 교화를 그려왔음을 의미하는 걸까. 이러한 점에서, 손동인의 동화는 관념성이 도드라지는 박화목의 작품과 외관상 대별되지만, 동시에 아동문학의 교육적 효용을 중시했던 박화목의 문학관과는 얼마간 상응하는 지점을 갖는 듯하다. 기실 이러한 그의 경향은 창작 바깥의 영역에서도 두루 발견되곤 한다.

34) 위의 글, 34쪽.

35) 손동인, 『한국 전래 동화 연구』, 27쪽.

36) 손동인, 『傳來童話와 庶民性』, 30쪽.

37) 위의 글, 31쪽.

38) 이재철, 「손동인론」, 『한국아동문학작가론』, 개문사, 1983, 215쪽.

39) 오정희, 「손동인의 『명아리 삼형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2쪽.

가령 손동인의 후기 전래동화 연구에서 그의 관심 저변에는 단순히 전래 동화라는 양식에 관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교육적 목적이 함께 있음이 종종 확인된다. 전래동화가 지닌 여러 특징을 개괄·소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각 요소가 아동의 정서 함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평하는 대목에서 특히 그러하다. 또한 그는 한글학회에서 주관한 ‘어린이를 위한 문학교육’ 연수회에서 부모·교사가 좋은 책을 선별하거나 (전래)동화의 속성을 미리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는데, 이는 어린이에게 “배울 점·본받을 점을 일러주기 쉽다”는 이유에서였다.⁴⁰⁾

창작, 연구, 강연 등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교육적 면모는 일생을 교육자로 살았던 손동인에게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음 절에서 조금 더 상세히 검토할 테지만, 이 역시 단순히 볼 사항만은 아니다.

2) 이드에서 현실원칙의 수용으로

손동인의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논의를 이어보자. 초기 동화집 『병아리 삼형제』에 실린 단편 「덕이와 호콩과」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교훈이 담긴 동화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평소 거짓말에 능한 ‘덕이’는 부모 몰래 호콩을 사 먹고 싶어 밤중에 배가 아프다며 거짓말로 둘러댄 뒤 변소에 간 척하고는 아버지의 신을 신고 급히 호콩을 사러 나선다. 호콩을 사서 돌아오는 중에 덕이는 친구 집에 널린 비옷이 필력이는 모습을 보고 놀라 호콩도 신도 모두 내팽개치고 급히 집으로 내달린다. 다음날 신발이 없어진 것을 알아챈 아버지의 추궁에 결국 덕이는 거짓말을 들리게 되고 크게 혼난다. 교훈주의적으로 보이는 이 동화의 결말은 아래와 같다.

이래서 덕이는 아버지에게 흠씬 매를 맞았습니다. 사실대로 어제저녁 이야기를 살살이 캐어 바쳤습니다. 그리고 덕이는 - 거짓말을 했기[하는] 때문에 이런

40) 「글짓기 지도, 생활문·기행문등 다양하게」, 『한겨레』, 1990년 8월 10일자.

경을 치이는거야, 마음속으로 이렇게 굳게굳게 결심하면서도 그 호공이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⁴¹⁾

단순히 교훈에만 치중했다면 덕이가 “굳게굳게 결심”하는 데에서 이 이야기는 종료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손동인은 흠뻑 매를 맞고 혼났으면서도 끝끝내 “호공이 자꾸만 생각”나는 덕이의 마음을 서술하며 동화를 매듭짓는다. 이 작품에서 덕이는 일면 교화되는 듯하나 자기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든지 거짓말을 하면 혼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이미 많은 어린이가 알고 있는 내용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는 전혀 흥미롭지도 않다. 이 동화가 어린이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는 필시 교훈 때문이 아니라 덕이의 모습으로부터 자신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다.

아무리 혼나고 결심하는 일을 반복하면서도 불쑥 샘솟는 충동이나 생각들, 손동인은 이러한 어린이의 마음이 — 비록 어른들은 혼낼지언정 그 자체는 — 잘못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임을 비춘다. 앞서 정신분석학에 기초한 손동인의 아동관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이를 참조한다면 ‘초자아’(아버지의 별)의 억압과 ‘자아’(덕이의 결심)의 억제에도 불구하고 솟아나는 ‘이드’(덕이의 호공 생각)의 충동을 그려내는 「덕이와 호공과」의 결말은 프로이트의 정신 구조 모델과 맞아떨어지는 듯하다. 동화에서의 관건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밤중에도 문득 떠오르는 호공 생각을 덕이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있다.

이렇듯 개인은 자라면서 교화의 과정을 거쳐 충동을 억제하거나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겠지만, 충동에 해당하는 어린이의 마음 그 자체는 교화의 영역이 아님을 손동인의 동화는 보여준다. 그러므로 교육적인 효용을 중시하더라도 여기서는 어떤 교훈(초자아)을 제시하는지보다는 ‘나’의 본모습(이드)을 대면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일지라도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 씨앗이 마음에

41) 인용문은 일부 수정했으며 원문은 대괄호 안에 표기함. 손동인, 「덕이와 호공과」, 『병아리 삼형제』, 한글문예사, 1957, 116쪽.

심어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과 산문의 세계를 중시하게 되었다고 밝힌 손동인은, 작품 창작에서도 현실 어린이의 근원적 충동이 자리하는 이드의 측면을 특히 주목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제작 「병아리 삼형제」 역시 흥미로운 텍스트다. 주인공은 ‘민이’네 병아리 삼형제다. 삼형제의 어머니는 이웃집 수탉과 노느라 자주 형제를 방치했는데, 이에 반해 다른 이웃집 암탉 아주머니는 18남매를 돌보는 데에 여념이 없다. 삼형제는 그런 아주머니네 남매들을 부러워했고 심지어 동생 ‘고을리’는 밤이면 아주머니네 둥지로 가 그들과 함께 잠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아주머니네 남매가 먹을 모이를 조금 먹었다는 이유로 아주머니에게 마구 쪼여 앓다가 죽게 된다. 삼형제의 어머니는 막내가 죽은 줄도 모른 채 밖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슬피하던 형제 앞에 주인인 민이가 나타난다. 평소 큰어머니로부터 차별을 당해 온 민이는 서로의 처지가 비슷하다며 자신이 대신 아주머니 암탉을 혼내주겠노라 말한다.

우리는 이 “민이”가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정이 꼭 우리와 같다는 이야길 듣고 뭔지 모르게 우리 편이 됐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기까지 났습니다. (...) 아마 “민이”가 가서 그 아주머니께 우리 대신 양값을 해 준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동생 “고을리”를 죽인 그 아주머니를 될 수만 있으면 혼이 나게 골려 주었으면 싶었습니다.⁴²⁾

인용문은 병아리 형제의 독백이다. 무책임한 부모와 야박한 주변 어른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아리 삼형제는 다름 아닌 당대 어린이의 형상이겠다. 한테 자신들보다 더 강한 존재인 민이에게 이입하는 형제의 마음은 실상 동생 고을리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고을리가 18남매 사이에 끼어서 생활하고 싶었던 것은 그 또한 어머니의 방치로 인한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또 다른 어른인 아주머니네와 함께 먹고 자면서 “뭔지 모르게

42) 손동인, 「병아리 삼형제」, 『병아리 삼형제』, 한글문예사, 1957, 157쪽.

우리 편이 됐다는 기분”을 느끼며 “용기”를 얻고 싶어하였을 것이다. 이는 병아리 형제뿐만 아니라, 크게는 차별당하고 고립되는 와중에 병아리들에 게서조차 “우리 편이 됐다는 기분”과 “용기”를 얻고 싶었을 민이의 마음이기도 할 것이다.

동생을 죽인 아주머니가 더 강한 존재에게 혼쫓이 났으면 하는 마음, 자신을 차별하는 큰어머니에게 감히 표하지 못하는 분노를 암탕에 투사하여 대신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 - 여기에는 약자들의 정동의 표출만이 드러난다. 이 동화로부터 교화성은 좀처럼 감지되지 않는다. 그보다 돌올한 것은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욕망을 솔직히 표출하는 어린이의 마음이다. 이때 문제의 해결은 어린이의 몫이 아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집으로 되돌아온 것은 이런 일이 있던 바로 그 이튿날이었읍니다.”⁴³⁾ 이튿날 사태를 수습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어머니, 즉 어른의 소임이다. 솔직한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대면하는 것만으로 어린이는 자기 소임을 다한 것이다. 이처럼 손동인의 초기 동화가 주목하는 측면은 초자아보다는 이드에 있다.

다만 이러한 손동인의 경향이 후기에 이르러서도 일관적이었는지는 확신하기 어려워 보인다. 후기 작품일수록 손동인의 작중 어린이는 점차 교화적인 형상에 가까워지는 듯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손동인의 시각이 변화한 양상은 전래동화 연구의 측면에서도 일부 발견된다. 예컨대 앞서 인용했다시피 1970년대까지 그는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허언과 기망’ 등의 요소를 서민층이 지닌 “기저불안”을 초극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유로 옹호했다. 하지만 1984년에 발간한 『한국 전래 동화 연구』에서는 전래동화의 이러한 측면을 다른 어조로 평한다.

서문에서 그는 전래동화의 미덕을 소개하는 동시에 그 안에는 “유우머나 위트에 치중한 나머지, 아동 인권을 유린하거나, 도둑질·사기·허언·약탈·침략·공격까지 용납하는 허울 좋은 개살구들도 섞여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덧붙인다.⁴⁴⁾ 서민층의 현실 초극 수단으로 옹호되었

43) 같은 곳.

44) 손동인, 『한국 전래 동화 연구』, p. ii.

던 전래동화의 ‘허언’ 등은 “허울 좋은 개살구”가 되었다. 더 나아가 본문 가운데 ‘거짓말과 속임수’ 모티프를 다룬 대목에서는 “그 허언과 기망 행위를 분석하게 된 이유는, 한 마디로 말해서 허언이 소년 범죄의 제1경로”이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⁴⁵⁾ 과거 전래동화로부터 서민층=약자=어린이의 충동과 무의식적 불안을 발견했던 손동인의 시선은, 이제 아동의 정서적 함양 또는 아동의 범죄 경로를 이해하려는 교육적 목적으로 얼마간 대체된 것이다. 한데 이를 단순히 손동인의 아동문학관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동한 것 정도로만 평할 수 있을까.

손동인의 후기작인 장편 『언덕 너머 햇살이』(월간 새벗, 1989)는 교화성이 도드라지는 소년소설이다. 고아였던 주인공 ‘성규’는 주변 인물들의 편견에도 굴하지 않고 유머러스한 태도를 잃지 않는데, 희망을 잃지 않고 의연히 살아간 끝에 성규는 어머니와 재회한다. 방정환의 『만년 샅쓰』(1927)의 변주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어린이 인물의 이드보다는 불우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착한 마음을 지나라는 초자아적 교훈이 전면에 더 부각된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몇몇 흥미로운 대목이 발견된다. 그 가운데 하나는 “나는 종교가 없다. 그러나 어머님을 믿는다”라고 말한 작가답지 않게 기독교적 색채가 강하다는 점이다. 성규가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어머니와 성탄절에 재회한다는 구성이나, 누명을 쓴 성규 어머니가 교도소에서 복무하는 동안 “영면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꼬박꼬박 기도하는 모습 등에서 이는 잘 드러난다.⁴⁶⁾

이러한 경향은 일차적으로 본 작품이 발간된 곳이 기독교 계열 잡지인 ‘월간 새벗’이었던 점에서 기인한 바가 크겠다. 하지만 이때 기독교는 소재 차원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닌 듯하다. 이 작품에서 손동인은 「내 어린 친구 세호에게」라는 제목의 서문을 달아놓는다. 그는 ‘세호’라는 독자를 향해 이 동화를 읽고 용기를 얻기를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세호 같은 아이들을 모른 채 팔호 속에다 단아버리지는 않

45) 위의 책, 243쪽.

46) 손동인, 『언덕 너머 햇살이』, 월간 새벗, 1989, 211쪽.

을 것이다.”⁴⁷⁾ 흥미롭게도 이 작품에는, 동화 작가인 홍렬의 아버지가 성규를 입양하여 성탄절 선물로 성규가 주인공인 동화책을 출간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홍렬의 아버지는 성규가 역경 끝에 어머니와 재회하는 이야기를 선물하고 싶어 이 동화를 쓰겠노라 말한다. 성규는 허구의 세계에서나마 어머니와 만나는 것으로 만족했으나, 끝내 성탄절에 어머니와의 감동의 재회를 이룬다.

이는 세호라는 독자를 위해 동화를 집필한 손동인 자신의 이야기처럼도 읽힌다. 실제로 이 시기 즈음 『가장 귀한 커튼』(대교문화, 1987) 『아양, 누구하고 놀지!』(육영사, 1989) 등등 손동인이 발표한 여러 작품에서 세호라는 이름의 어린이 주인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커튼을 구입할 돈이 없을 만큼 가난한 교회를 위해 기부금을 전한 재미교포 할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가장 귀한 커튼』에서도 “세호네 가족은 경건한 마음으로 가슴에 성호를 긋고는, 그 할머니를 위해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한다.⁴⁸⁾ 위 일련의 단서를 종합한다면 세호는 아마도 종교적 배경을 가진 구체적 현실 어린이 독자일 것이며, 손동인은 그런 세호를 떠올리며 이 동화들을 집필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언덕 너머 햇살이』에서 “나는 종교가 없다. 그러나 어머니를 믿는다”라는 작가의 본연적 태도가 감지되는 것은, 이 작품이 주인공 어린이의 독립 의지를 특별히 응원하는 까닭에서다. 여러 핍박과 불우함 속에서도 성규는 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어른이나 종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책임진다. 어머니의 생존 소식을 전해 듣고는 홀로 인천과 양평 등을 돌아다니며 어머니를 직접 수소문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 결말부 성탄절 행사 대목은 대단히 상징적이다. 성탄절 기념 무대에서 성규는, 예수의 탄생과 같은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닌,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역을 맡아 연극을 펼친다. 이는 성규가 끝내 어머니와 재회할 수 있었던 이유란 다름 아닌 그의 독립성·자립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47) 위의 책, 5쪽.

48) 손동인, 『가장 귀한 커튼』, 대교문화, 1987, 22쪽.

이렇듯 손동인이 현실 속 실존하는 어린이의 독립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문학 활동을 이어간 것이라면, 그의 몇몇 후기 작품에서 보이는 어떤 교화성, 교훈주의, 기독교적 색채는 단순히 그의 문학관이 보수적으로 이동했기 때문만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여전히 약자로서의 어린이가 갖는 구체적인 현실성, 그리고 초극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손동인의 후기 아동문학에서 일부 관점의 변모가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의 한가운데서 동심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의 근원적인 태도만큼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4. 나가며

박화목과 손동인, 이 1924년생 동갑내기 아동문학가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현실의 잔해 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 세대의 동심을 건져 올리고자 노력했다. 박화목은 시적 상상력에 기초한 동심을 노래하되, 특히 1970년대 이후부터는 산업화로 인해 향토적 정경이 파괴되어버린 시대의 어린이들이 정서와 서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그 대안으로 박화목은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기도 한 기독교적 이상주의를 자기 문학에 반영하여, 사라진 향토적 정취를 그리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파괴와 죽음의 자리 위에서 새로운 동심의 출현(부활)을 포착하고자 했다. 손동인은 산문적 세계와 현실성에 입각하여 당대 약자로서의 어린이의 마음을 그리고자 했으며, 1970년대를 전후해서는 전래동화 연구를 통해 동심을 화두로 민족적 차원의 연결성을 탐색한다. 초기 창작과 연구에서 손동인은 이드로서의 동심을 옹호해왔으나, 후기에는 얼마간 교화성을 강조하는 아동문학관으로 방향이 전환된 듯한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약자로서의 어린이의 현실을 그려내고 이들의 극복 의지를 응원한다는 점에서, 손동인의 근원적인 동심관·아동문학관은 굳건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폐허의 청년들”이라는 시대적 공통분모를 나눠 갖고 있음에도 두 동갑내

기 아동문학가의 궤적이나 전망은 다소간 상이했다. 이 차이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이들은 각자가 서 있던 조건적 토대부터 너무도 달랐다. 한 사람은 뿌리로서의 자기 거점과 단절된 채 월남한 상태에서, 다른 한 사람은 장소를 수차례 이동하되 자기 거점과의 연결성을 늘 확인하는 상태에서, 이들 각자는 허물어진 시대의 빈 곳을 채우고자 애썼다. 이 같은 존재 조건의 차이가 서로에게 어떤 효과를 일으켜왔는지는 앞으로 더 다각도로 논의되어야 하겠다. 다만 앞으로 우리 아동문학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현재의 관점에서 이들의 유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즉 폐허 위에서 시대의 동심을 발견하기 위해 다른 향방의 여정을 떠났던 이들의 발걸음으로부터 차이를 일별하는 것을 넘어 서로 맞닿는 지점을 더욱 발견하는 작업일 것이다.

■ 참고문헌

1. 기초자료

- 박화목, 김동리 편, 『박화목 아동문학독본: 한국아동문학독본 8』, 을유문화사, 1962.
- 박화목, 『천사와의 씨름』, 한국문학사, 1975.
- _____, 『教師와 어머니 위한 幼年童話』, 白鹿出版社, 1976.
- _____, 「꼬리연을 날린다」, 『기독교사상』 1981년 1월호.
- _____, 『新兒童文學論』, 보이스사, 1982.
- _____, 『아동문학개론』, 민문고, 1989.
- _____, 『아파트와 나비』, 화술, 1989.
- _____, 「한 여름밤의 꿈」, 『지방행정』 45(514),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6.
- 손동인, 『병아리 삼형제』, 한글문예사, 1957.
- _____, 「韓國傳來童話의 作中登場物 性格考: 特히 精神分析學的 見地에서」, 『論文集』 제4호, 인천교육대학교, 1969.
- _____, 「傳來童話와 庶民性」, 韓國兒童文學家協會 편, 『兒童文學의 傳統性과 庶民性』, 세종문화사, 1974.
- _____, 『한국 전래 동화 연구』, 정음문화사, 1984.
- _____, 『이 외나무다리 난 우알고』, 명문당, 1986.
- _____, 『가장 귀한 커튼』, 대교문화, 1987.
- _____, 『아양, 누구하고 놀지!』, 육영사, 1989.
- _____, 『언덕 너머 햇살이』, 월간 새벗, 1989.

2. 논문 및 단행본

- 김계곤, 「인간 손동인(上)」, 『廣場』 1989년 3월호.
- _____, 「인간 손동인(下)」, 『廣場』 1989년 4월호.
- 김응교, 「폐허의 청년들, 존재의 탐색」, 김응교 · 김진기 외, 『폐허의 청년들, 존재의 탐색』, 민음사, 2022.
- 신정숙, 「팔각정에서 차 한 잔: 박화목과 ‘과수원길」, 『통일한국』 제41권, 평화문제연구소, 1987.
- 오정희, 「손동인의 『병아리 삼형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원종찬, 「이원수와 70년대 아동문학의 전환」, 『한국아동문학의 쟁점』, 참비, 2010.
-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 _____, 『한국아동문학작가론』, 개문사, 1983.
- _____, 『세계아동문학사전』, 계몽사, 1989.
- 이충일, 『해방 후 아동문학의 지형과 담론』, 청동거울, 2016.
- 이영호, 「兒童文學의 傳統性과 庶民性」, 韓國兒童文學家協會 편, 『兒童文學의 傳統性과 庶民性』, 세종문화사, 1974.
- 정화숙, 「손동인론: 그의 수필 작품에 나타난 의식와 장르 확대를 중심으로」,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지지원, 「은중 박화목의 시에 나타난 기독교 세계관」,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진선희, 「박화목 동시 연구(1): 발표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9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0.

_____, 『박화목 동시 연구(2): 분향에 대한 그리움의 감각적 구체화』, 『韓國初等教育』 제21권 제3호,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11.

페리 노들먼,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 김서정 옮김, 시공주니어, 2001.

3. 기타 자료

『글짓기 지도, 생활문·기행문등 다양하게』, 『한겨레』, 1990년 8월 10일자.

Two Different Ways of Discovering the Child's Heart in Ruins

- Focusing on Park Hwa-Mok and Son Dong-In -

Kang Soohwan*

Park Hwa-Mok and Son Dong-In, children's literature authors born in 1924, each endeavored to discover the *child's heart* amidst chaotic realities in their own ways. Park Hwa-Mok sang of the child's heart based on poetic imagination, and especially since the 1970s, he strived to help children, whose local/rural landscapes were destroyed by industrialization, recover their emotions. As an alternative, Park Hwa-Mok reflected his own religious beliefs of Christian idealism in his literature, aiming not only to long for the lost local/rural emotions but also to capture the emergence(resurrection) of the child's heart as new over the ruins and death. Son Dong-In, based on the prose world and reality, aimed to portray the mind of children as the weak, and around the 1970s, explored national connectivity through the study of traditional fairy tales. Initially, Son Dong-In defended the child's heart as an id, but later his perspective seemed to shift toward emphasizing a moralistic approach in children's literature. However, from a realist perspective, by portraying the reality of children as the weak and supporting their will to overcome, Son Dong-In's fundamental points of view on the child's heart and children's literature were affirmed to be steadfast.

* Lecturer, Department of Cultural Contents & Management, Inha University

Key words : Park Hwa-Mok, Son Dong-In, Child's heart, locality, Christian idealism, reality,
id